

# 2028학년도 국어영역 예시문항 분석

## 1. 출제 경향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예시문항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다. 공통과목(문학, 독서)과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체제의 기존 수능과 달리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었으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출 문제의 경향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능 개편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킬러 문항 배제 정책에 따라 공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다.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나 고도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독서 지문, 난해한 문학 작품을 배제하였으며, 2025학년도 수능과 비교할 때 다소 쉬운 수준이었으나 일부 낮은 유형의 문항에 대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예시문항은 난이도에 대한 고려보다 출제 체제와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에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반영되기 때문에 난이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부터 이어져 온 출제 기조를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2. 출제 과목 및 과목별 문항 수

구 분	현재 수능	2028학년도 수능
국어	(공통) 독서 17문항, 문학 17문항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각 11문항	화법과 언어 10문항 독서와 작문 20문항 문학 15문항

2027학년도 수능까지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17문항, 문학 17문항 총 34문항이 출제되고,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각 11문항이 출제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출제 과목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변경되며,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실시된다. 그에 따라

과목별 문항 수는 화법과 언어 10문항, 독서와 작문 20문항, 문학 15문항으로 조정된다.

### 3. 전체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배점

구 분	현재 수능	2028학년도 수능	비 고
문항 수	45문항	45문항	변동 없음
시험시간	80분	80분	
전체 배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문항당 배점	2, 3점	2, 3점	

국어 영역의 문항 수, 시험시간, 배점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현재 수능에서는 ‘독서 → 문학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으로 문항이 배치되고 있으나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에서는 ‘화법과 언어 → 독서와 작문 → 문학’ 순으로 문항이 배치되었다.

### 4. 세부 영역별 출제 내용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에서는 현재 수능의 매체 영역이 제외되었고, 화법 5문항, 언어 5문항, 독서 15문항, 작문 5문항, 문학 15문항이 출제되었다. 독서와 작문에서는 4문항으로 구성된 통합 세트가, 화법과 언어에서는 3문항으로 구성된 통합 세트가 출제되었다.

영역	현재 수능	2028학년도 예시문항
독서	독서 이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17문항)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13문항) 독서와 작문 통합 세트(2문항)
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17문항)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15문항)
화법	(선택) 화법 1세트(3문항) 화법과 작문 통합 세트(2~3문항)	화법 1세트(3문항) 화법과 언어 통합 세트(2문항)
작문	(선택) 작문 1세트(3문항) 화법과 작문 통합 세트(2~3문항)	작문 1세트(3문항) 독서와 작문 통합 세트(2문항)

언어	(선택) 언어 1세트(2문항) 언어 단독(3문항) 언어와 매체 통합 세트(1문항)	언어 단독(4문항) 화법과 언어 통합 세트(1문항)
매체	(선택) 매체 1세트(3문항) 언어와 매체 통합 세트(2문항)	출제 범위에서 제외

-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 단독 세트에서 3문항, 화법과 언어 통합 세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화법 단독 세트 지문은 학생들의 토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만 6번 문제의 경우 간단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던 현행의 유형과는 달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12화언01-11] 토의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를 근거로 자료의 해석과 이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 유형의 다양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화법과 언어 통합 세트는 문법적 내용을 다룬 강연에서 출제되어 화법과 언어의 통합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고려할 때 문법적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화법 제재를 활용하면서 문법적 요소의 효과를 묻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언어 영역에서는 기존의 2문항으로 구성된 세트가 제외되고 단독으로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화법과 언어 통합 세트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기>의 분량이 많은 탐구형 문항들이 단독 문항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출제되어 변별력을 확보한 점이 특징적이다.
- 독서 영역의 경우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별 지문과 문항 체제는 현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 예시문항에서는 독서 이론 지문이 제외되었으며, 독서와 작문 과목의 성취 기준을 반영한 독서와 작문 통합 세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독서 이론 제재의 출제 여부는 출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독서와 작문 통합 세트는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능에서는 주제 통합 지문이 인문·예술에서 주로 출제되었지만 2028학년도 예시문항에서는 사회·문화에서 출제되어 지문이 다양한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 단독 세트에서 3문항, 독서와 작문 통합 세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작문 단독 세트는 현행 수능과 같이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 생성하기, 표현 전략, 고쳐쓰기 등 현재 작문 문항에서 출제되는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독서와 작문 통합 세트의 경우, 제시되는 독서나 작문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 ‘[12독작01-11] 글이나 자료에서 타당한 근거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다.’를 반영한 논증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 문학 영역은 2문항이 줄어들었을 뿐, 현재 체제를 유지하며 출제되었다. 문학 제제는 현재의 갈래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갈래 복합 지문으로도 최근 수능에서처럼 고전 시가와 수필이 출제되었다. 현대시는 문학 이론과 두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이후 출제되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은 조합이다. 교육과정을 고려했을 때 갈래 복합 지문은 예시문항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 5. 특기할 만한 변동 사항

### • 학습 활동 형태의 문항 증가

현재 수능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외의 과목에서 <학습 활동> 형태의 문제가 드물게 출제되었는데, 2028학년도 예시문항에서는 독서 13번·20번·24번, 문학 37번·42번이 <학습 활동>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활동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공교육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 새로운 성취 기준을 반영한 융합형 문제

2028학년도 예시문항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성취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화법과 언어 3번 문항은 실제 담화 상황을 기반으로 문법 요소의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화법과 언어의 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문항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12화언01-05] 담화의 맥락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와 ‘[12화언01-07]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매체를 대상으로 언어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를 문항으로 구현한 것이다.

독서 13번 문항은 <보기>와 연결하여 지문을 해석하는 기존의 유형이 아니라

<보기>를 이용하여 작문 내용을 생성하는 유형의 문항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12독작01-07] 인간과 예술을 다룬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고 삶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쓴다.’를 구현한 것이다.

독서와 작문 27번 문항은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로, 현행 수능의 작문 고쳐쓰기 문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12독작01-11] 글이나 자료에서 타당한 근거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다.’를 반영한 유형이다.

문학 42번 문항은 작품에 사회 생태주의의 관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12문학01-11]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항들은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융합적 주제들이 출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어휘 문항의 변화

현재 수능에서는 독서 영역에서 어휘 단독 문항이 2문항 출제되고 있다. 주로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 한자어로의 대체, 사전적 의미 등 지문의 내용과 연결성이 약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2028학년도 예시문항에서는 어휘 문항이 1문항 출제되었으며, 지문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독서 문항이 줄어든 만큼 어휘 문항의 수는 줄어들고, 독해와 연결된 출제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학 41번 문제는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과거에는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던 관용적 표현(속담, 격언, 사자성어 등)을 묻는 문항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적 표현이 작품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경우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예전처럼 고정적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5. 주요 문항 분석

### <3번>

[1~3]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 후 실시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언어의 공공성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발표나 토론 같은 공식적인 담화에 참여하거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상황에서는 언어의 공공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어휘나 문장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의 공공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화자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청자가 화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휘와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휘는 배리 시그니피컨트합니다. (반응을 살피며) 조금 의아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느린 속도로)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잘 이해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들 후자라고 하시네요.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가 이 자리에서 ‘뻔치다’ 같은 비속어나 ‘레알’ 같은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서 격식에 맞지 않는 가벼운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휘뿐 아니라 문장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는 토론 수업에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동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들을 찾아보니, 제가 사용한 ‘-ㄴ 것 같다’와 ‘-아 보이다’가 모두 확신의 정도가 낮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싶었지만, 토론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수와 소통하는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어요. 발표 내용 중,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네요.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기 위해 동사, 부사, 의존 명사, 보조 용언, 인용절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휘나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앞서 언급된 표현을 더해 확신의 정도에 변화를 준 문장들입니다. 확신의 정도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 설명해 볼까요?

- ㉠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분명히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학 생: [A]

- ① ㉠은 ㉡와 달리 보조 용언을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② ㉠은 ㉢과 달리 피동 접사가 있는 동사를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③ ㉡와 ㉣은 모두 의존 명사를 썼는데, 의존 명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이 더 높아요.  
④ ㉡와 ㉢은 인용절을 썼다는 점은 같지만, 인용절 바로 뒤의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⑤ ㉢과 ㉣은 모두 부사를 썼는데, 부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이 더 높아요.


이 문항은 어휘와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문장에서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발표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을 <보기>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문제인데,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 용언, 피동 접사, 의존 명사, 인용절, 부사 등과 같은 주요 문법 개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념이 실제 담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 확신의 정도가 높고 낮은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모국어 화자로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 문항은 ‘믿게 되었습니다’의 ‘됐습니다’가 보조 용언이라는 것을 알면 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는데, 언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9번>

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새말을 만들 때는 어근, 접사, 어미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다. 가령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사람에게 바로 오는 것을 막는 도구’를 가리키기 위한 새말로 ‘추운바람막개’를 만들었고, 이 새말의 직접 구성 성분이 ‘추운바람’과 ‘막개’로 분석된다고 하자. 이때 ‘추운바람’과 ‘막개’는 각각 어미 ‘-ㄴ’과 접사 ‘-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아래의 ㉠은 점이 ‘추운바람막개’와 같다.

대상	용도	새말
	종이컵을 보관하면서 하나씩 뽑아 쓸 수 있게 하는 통	㉠ 긴종이컵통(긴-종이컵통) ㉡ 새컵뽑이통(새컵뽑이-통) ㉢ 컵뽑는긴통(컵뽑는-긴통)

(㉠~㉢ 옆의 괄호 안의 붙임표(-)는 직접 구성 성분의 경계임.)

- ① ㉠은 접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 ② ㉡는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
- ③ ㉢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
- ④ ㉠과 ㉡는 모두,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
- ⑤ ㉡와 ㉢는 모두, 접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 문항은 새말을 만들 때 사용되는 형태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여러 형태소를 결합하여 새말을 만드는 과정은 문법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근, 접사, 어미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뽑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이고, ‘뽑는’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것이며, ‘바람’은 단일어라는 점 등을 알고 있다면 답을 파악할 수 있다.

<13번>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세기 들어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미학, 영화 창작 방식, 관객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를 가공하는 '디지털 후반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다.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되었다. ㉠ 지가 베르토프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영화-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산적인 전자 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작업 과정에서 변형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뱃'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인식하는 '트루 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이다. 따라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3. 다음은 영화감독 A의 인터뷰이다. 밑줄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 ㉡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년 0월 00일

□□일보

기자: 감독님께서 ㉠ 이전 영화들에서 필름 작업을 고집하다가 ㉡ 이번 작품에는 디지털 기술도 사용하셨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A: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 세계를 표현한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만, 시각적 쾌감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를 원했고,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제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한도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관객이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기쁩니다.

- ① A가 필름 작업을 고집했던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에서 현실의 역동적 양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② A가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자신의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현실의 총체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③ A가 자신의 영화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뱃'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④ A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최소화하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눈'의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⑤ A가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지각적 리얼리즘'을 의도하고 연출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이 문항은 글을 읽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작문을 하는 상황에서,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드러난 유형이지만 풀이 과정은 기존의 독서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필름 영화와 디지털 영화의 특성을 <보기>의 ㉠, ㉡에 연



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에서 ‘영화-붓’과 ‘합성 리얼리즘’은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영화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를 바라는 A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다면 문항의 답을 고를 수 있다.

## <17번>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때 정보의 ‘객체’는 접근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 자원을, 정보의 ‘주체’는 접근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접근제어’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정보 주체만이 정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이다.

접근제어에서는 보안등급에 따라 접근 권한이 관리되는데, 이때 ‘보안등급’은 정보 주체와 객체에 부여된 중요도 또는 신뢰도를 나타낸다. 인터넷 카페에서 등급에 따라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주는 것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접근제어에서 관리하는 권한은 접근제어행렬, 접근제어목록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접근제어행렬’은 정보 주체를 행으로, 정보 객체를 열로 구성한 테이블로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권한은 해당 주체의 행과 해당 객체의 열이 만나는 셀에 기록된다. ‘접근제어목록’은 특정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주체가 나열된 목록이다.

접근제어에는 임의적 접근제어, 강제적 접근제어 등이 있다. ㉠ ‘임의적 접근제어’에서는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해당 객체에 대한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권한 역시 해당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결정한다. 따라서 임의적 접근제어에서 접근 권한을 표현할 때는 접근제어목록이 주로 사용된다. 임의적 접근제어는 구현이 쉽고 권한 관리가 유연한 방식이지만,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서 접근 권한의 일괄적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강제적 접근제어’에서는 보안등급 부여와 접근 권한의 관리가 중앙화된 방식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제적 접근제어에는 벨라파돌라 모델과 비바 모델 등이 있는데, ㉢ 벨라파돌라 모델은 기밀 정보의 유출 방지에 적합하고, 비바 모델은 정보의 신뢰도 유지에 적합하다.

정보 객체가 문서이고 정보 주체가 객체에 대한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벨라파돌라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를 읽는 것이 금지되지만,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읽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쓰는 것은 금지되지만,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에 쓰는 것은 허용된다. 비바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 권한이 없지만,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가 가능하다. 또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이 없지만,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를 읽는 것이 허용된다.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포함된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비바 모델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비바 모델 접근제어를 사용하는 ○○ 회사의 접근제어행렬이다. 이 회사에는 갑, 을, 병이라는 정보 주체와 A, B, C라는 정보 객체가 있다. 이 회사는 모든 정보 주체 및 객체를 1등급, 2등급, 3등급의 보안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테이블에서 r은 읽기 권한을, w는 쓰기 권한을 의미한다.

주체 \ 객체	A	B	C
갑	[ ]	rw	r
을	rw	w	r
병	w	w	rw

- ① 모든 주체가 B에 대한 쓰기 권한을, C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갑은 A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겠군.
- ② 을은 병에 비해 읽기 권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안등급은 을이 병보다 높겠군.
- ③ 을은 A에 대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을과 A의 보안등급은 같겠군.
- ④ 을은 C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으므로 C보다 보안등급이 낮은 을에게 C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겠군.
- ⑤ 병이 A와 B에 대한 읽기 권한이 없는 것은 병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겠군.

이 문항은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체와 객체의 보안 등급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고, 등급에 맞는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다. 비바 모델에서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 권한이 없고,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  $rw$ 가 있는 칸의 주체와 객체는 보안등급이 같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모든 문서에 대해 쓰기 권한이 있는 병의 보안등급이 가장 높으며 모든 정보 주체가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B의 보안등급이 가장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보안등급이 순위가 정해지면 A의 빈칸에  $r$ 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 <21번>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 '사전억제의 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점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영역의 심의는 법적인 사후심이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요구 받았던 본인확인제를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 본인 확인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장점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범위'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사적 인물이나 사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 법리는 법원의 명예훼손 재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 삭제 없이 삭제해야 한다. 만약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그 기사가 허위이며 중대하고 ㉣ 현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기사 삭제의 청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때 기사의 허위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나 무죄 확정판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 인용될 수 있다. ㉥ 방영금지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 부인했다.

21. ㉠을 바탕으로 ㉡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방송으로 인해 훼손된 인격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방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③ 인격권을 손상할 것이 명백한 방송이라면, 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④ 현저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 ⑤ 허위 사실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이 문항은 간단한 형태로 보이지만 (가)의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에 적용하여 비판적 입장을 제시해야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다. ㉠에 대한 판단 정보는 주로 1문단과 3문단에 있지만 2문단에 있는 ‘사전 억제 금지원칙’과 관련된 정보, 즉 사전 심의에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놓치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과 제한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지문의 정보를 변형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한 것으로 선지를 구성하여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에 대한 비판은 바꾸어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의 주장을 기각한 이유라는 점을 파악하고 그 근거들을 찾아보았다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23번>

23.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신문사는 공적 인물인 A가 불법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반인 B는 포털 게시판에, 보도된 의혹 외에 A가 추가로 부당 이익을 얻은 적이 있다는 글을 익명으로 올렸다. 사건이 커지자 ‘을’ 방송사는 A의 부당 이익 수취에 대한 의혹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1주일 후 방영하겠다고 방송에서 예고했다. A는 방영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①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면, A는 ‘갑’ 신문사의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겠군.
- ② A의 혐의가 무죄로 종결되고 A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을’ 방송사에 해당 사실을 보도하라고 판결하겠군.
- ③ B가 게시한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 아니며 A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포털의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을 삭제해야겠군.
- ④ A가 명예훼손 책임을 ‘갑’ 신문사에게 묻는다면, 법원은 A가 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의 책임을 완화하겠군.
- ⑤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을’ 방송사가 방송하려는 내용이 진실이거나 A의 인격권을 중태하고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겠군.

이 문항은 독서 자료로 제시된 두 편의 글을 분석적·통합적으로 읽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법률 주제의 지문을 바탕으로 한 문항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양상을 파악해야 풀 수 있다. 이러한 문항에서는 <보기>나 선지에 조건으로 제시된 상황이 지문의 어떤 정보와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에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데, 반론보도청구권이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파악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다.

<27번>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게 되는 만족과 기회비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기회비용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구한다.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공연 관람을 가자고 한다. 만약 공연 관람을 선택한다면 공연 관람료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이 공연 관람으로 포기한 것의 가치에 해당한다. 기회비용을 구할 때, 공연 관람료처럼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도 있다. 바로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의사 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가령 공연이 시시하여 관람을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경우 관람료가 아까워 계속 관람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므로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 가져올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나)

정책 영역에서는 정보가 충분한 경우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가치가 충돌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 정책 상황으로 인해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때 딜레마란 '두 개의 배타적 대안이 존재하고, 두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상충적이며, 각 대안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딜레마와 유사해 보이지만 딜레마와는 구별되는 상황이 있다.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이나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 등이다. 불확실성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해소할 수 있고 모호성은 정책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딜레마로 보기 어렵다.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에 관한 논의의 함의는 대안을 평가할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우리 지역의 ○○ 부지에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우선 지역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들 수 있다. 시설을 유치할 경우 시설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기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민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지하에 구축될 하수 처리 시설의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 이□□에 따르면 여가와 휴식 공간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그렇지 않은 지역민보다 정서적 만족도가 1.5배가량 높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하수 처리 시설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은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는 물론, 부지의 다른 가치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더라도 대안을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절차적 합리성이 제안될 수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는 내용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 학회 논문 자료 -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대안의 가치를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면 대안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정보가 충분하면 대안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배타적 대안이 상충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회비용 산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딜레마에서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에 따라 만족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가치 충돌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이 문항은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된 독서와 작문 통합 문항이다. 현행 수능 작문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글을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작문 제재와 달리 좀 더 어려운 독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보기>와의 연결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낯설게 느낄 수 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에 나타난 논증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문항의 전제가 [A]에 포함된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임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기>의 ‘상황’이 (나)에서 언급한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이해하고, 이 경우 ‘절차적 합리성’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여야 한다. 주어진 <보기>를 활용하여 [A]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문항의 설계를 고려하면, (다)를 쓴 학생은 기회비용을 산출한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여 자신의 반박을 구체화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42번>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더위가 켈 무렵이었다. B 공단 성장비료 석교공장의 노무과장이 장정 셋을 거느리고 집에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종욱이가 시장에 나가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어떤 위인인가 상판 좀 봅시다.” 힘줄째나 써 보이는 한 장정이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 “내 아들놈인데 다, 당신네는 누, 누구요?” 기세에 눌려 내 목소리가 더 더듬거렸다.

㉢ “그렇다 막박 새파란 놈이잖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장정이 목박질렀다. “아들은 집에 없소. 무, 무슨 일인데 이리요?”

“그 자식 당장 작살낼 테야. 암모니아 가스가 아니라 진짜 동불을 아가리에 피 넣어야 정신 차릴 개새끼!” 또 다른 장정이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렸다.

㉣ “소란 파워 죄송합니다만,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마흔쯤 된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말했다.

“마루에라도 앉아요.” 노무과장을 상대로 내가 말했다. “병국이를 차, 찾사면 힘들겠네요. 늘 사정쯤 돌아오니, 난들 그놈 행선지를 모르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노무과장이 병국이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 “선생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요로에 진정설 냈습니다. 여기 시 보건과에서 접수한 진정서 사본을 보십시오.”

마루에 걸터앉은 노무과장이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방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어릿어릿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성장비료 석교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면서 도 폐기 처리 과정에 근본적 개선책이 전무함이 입증되었다.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아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해, 가스가 폐수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밀려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 나가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의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새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의 주기로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 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고의로 밸브를 틀어 야밤에 가스를 배출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정신병자 놈이 쓴 낙서는 더 읽을 필요가 없소.” 장정이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물었다.

“분명합니다. 뒷조사해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더군요. 6월에는 풍천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풍천화학도 아음에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 불질을 배출시켜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새 3백여 마리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대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말입니다.” 노무과장이 ‘새나 물고기’란 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소득 1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선생도 잘 알지요?” 했다.

“사람이 아닌, 한갓 새와 물고기가 죽었다구 진정을 내?”

㉥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에는 아예 부릴 뽀아야 해!” 한 장정이 주먹을 내두르며 소리쳤다.

(중략)

“요즘 제 판에는 조류와 공해 문제를 여,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시,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만한 식견이 있음에도 무도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그 일이 정당해도 사전에 부대의 양해를 구해야지요.”

“야영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 밀경했죠. 부대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내보내 주시면 아비 된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윤 소령이 당면병을 불러 차를 내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1968년 11월 윤진·삼척 지구의 무장 공비 출현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예로 들었다.

“……아음을 틈타 계속정을 이용해서 동해안 따라 남하했던 겁니다.” 아울러 국내 유수의 공업 단지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실전이 없달 뿐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국민이 평안을 원한다면, 그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도 경각심을 늦출 수 없어요. 국민 복지의 향상과 제반 산업의 발전도 안보의 확립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차를 마시고 나와 소령은 당면병에게,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한참 뒤, 아들이 중위와 함께 파견 대장실로 왔다. 쑥대머리에 뺨이 붉은 피뚝뚝한 아들놈 물결이 증병 든 환자 꼴이었다. 검파와 검정 바지도 뽀투성이여서 하수도 공사라도 하다 나온 듯했다. 꺼진 눈자위에 번들거리는 눈만이 살아, 나를 보았다.

“넌 도대체 어, 어떻게 돼먹은 놈인가!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는 해안 일대에 모, 못 다니는 줄 알면서,” 내가 노기를 띠며 말했다.

“본의는 아니었어요. 시나홀 사이에 동진강 하구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이유를 좀 캐내 보려던 게…….” 병국이는 머리를 떨구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42.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가의 인식을 정리해 보자.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오염에 대한 생태주의의 인식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생태주의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등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오염이 자연의 훼손이면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재정의가 사회적 담론에 대한 비판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한 사회의 지배 담론은 특정 가치나 필요에 따라 자연의 훼손을 당연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무기력한 것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생태주의는 근대화, 경제 개발, 권위주의, 인보 위기 등 생태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촉구한다.

- 공장의 오염 물질이 ‘새와 물고기’뿐 아니라 어민의 삶도 위협하게 한다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을 자연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장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장 관계자가 병국을 ‘상습범’으로 폄하하며 ‘국민 소득 1천 달러 달성’을 언급하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의 해결 노력이 경제 개발 담론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장 관계자가 환경오염의 피해를 무시하며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병국이 ‘공해 문제’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아비 된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고 ‘나’가 말하는 설정에서, 권위주의 담론이 자연의 훼손을 당연시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새 배를 조사하다 통제 구역을 넘은 병국을 두고 윤 소령이 ‘안보의 확립’을 강조하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의 해결 노력이 안보 위기 담론과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12문학01-11]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에 근거하여 출제된 교과 융합형 문항이다. 이 문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습 활동>의 자료에서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관점을 읽어내고, 문제에 대응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 사건의 전개 양상, 서술자의 서술 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아들인 병국에게 아버지로서 ‘공해 문제’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나’의 발화가 지니는 의도를 파악한다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 <45번>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는 매경으로 가능하다. 이때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잇는 회상 형식이나, 상징적 공간과 화자가 처한 현실의 동일시 등을 통해 현재 시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면에서 떠올린 것이든, ㉠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직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져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시적 장치로 구조화된다.

(나)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햇보이는 그 긴 연막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포부라져 돌아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밀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꽤 많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할복 자웃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땡겨졌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들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시리웠다.

㉡ 그런 날은 함을 감가를 만나서 돌아와 말았다.

할아버지도 현재 난치를 모른다든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절에,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머니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 김기범, 「길」 -

(다)

한밤중에 혼자  
깨어 있으면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다

㉢ 간간이

늑골 사이로  
추위가 물려온다

등산도 하지 않고  
팜 한번 안 돌리고  
내 속에서 마주치는  
한계령 바람 소리

다 물어버려  
갈 곳이 없다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한다

언 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다.

- 천양희, 「한계」 -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어머니의 상여'에 대한 경험을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떠올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회상 형식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과 이어지는 과거의 상실감을 그려내는군.
- ② (나)는 '조약돌처럼' 잃어버린 대상을 '동구 밖'에서 여전히 '기다려 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에 함께했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현재 시점으로 표현하는군.
- ③ (다)는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을 '눈보라 속에 놓인' 모습으로 표현하여, 현재 화자가 처한 한계 상황을 형상화하는군.
- ④ (나)는 '까마귀'와 '두루미'가 떠난 '강가'에서 계절이 바뀔을 통해, (다)는 '세상'에서 '바람 소리'와 마주침을 통해 상징적 공간이 현재 화자가 처한 현실과 동일시됨을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떠나간 대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됨을 통해, (다)는 '한밤중' 깨어 있는 상황이 '내 속'에서 떠올린 '한계령'으로 연결됨을 통해 화자가 직면한 현재를 보여 주는군.

이 문항은 작품 감상의 관점을 제시한 (가) 글을 읽고 이를 적용하여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에 외적 준거를 주고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존의 유형과 유사하다.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적 시간과 공간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 (다) 작품이 시간과 공간을 형상화하는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각각의 시어와 연결해야 풀이할 수 있다. (다) 작품에서 '한계령'은 '등산도 하지 않고' 이르게 된 내면의 공간으로, 그러한 '한계령'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바람 소리'와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